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51



Contents

※ 2026.10.07.(수) 기준(대상 기간 : 2026.09.30.~2026.10.06.)

□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계획 첫해 목표 미달(2026.10.01) 1
 - 제주도, G20 유치 TF 확대...탄소중립·AX 연계(2026.10.06) 1
 - 충주시, 2030년 온실가스 43.9% 감축 선포(2026.10.01) 2
 - 충남도의회, 탄소제거(CDR) 정책 연구모임(2026.09.30) 3
- AI 분야 3
 - 동해시, 100MW급 AI데이터센터 건축허가(2026.10.02) 3
 - 경기도, 장애인 AI 자립비서 시범운영(2026.10.01) 4
 - 구로구, 탄소중립 AI융합 인재양성 추진(2026.10.01) 4

□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5

- 탄소중립 분야 5
 - 에너지공단, 기후정책 성과감사 세미나(2026.09.30) 5
 - 코레일, 미래철도 자문위 출범...탄소중립 논의(2026.09.30) 6

- 부산진해경자청, 신항 탄소중립 생태계 포럼(2026.10.03)	6
---------------------------------------	---

■ AI 분야 7

- 건설기술연구원, AI로 불법주정차 99% 감축(2026.10.06)	7
---	---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AI 안전관리·저탄소 경영(2026.10.06)	8
---	---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8

■ 탄소중립 분야 8

- 레미콘연합회, 제주서 경영혁신 포럼 개최(2026.10.06)	9
--------------------------------------	---

- 공주금학초, 원예활동 탄소중립 교육 운영(2026.10.03)	9
--------------------------------------	---

■ AI 분야 10

- LGU+, AI 네이티브 컨택센터 전략 공개(2026.09.30)	10
--	----

- 우리은행, AI 채무진단으로 포용금융 확대(2026.10.06)	11
---------------------------------------	----

- 두산에너지빌리티, 스페이스X AI에 가스터빈(2026.10.06)	11
--	----

- 코스맥스, AI 원형탈모 예측 모델 특허 출원(2026.09.30)	12
---	----

- 국립순천대, AI중심대학 선정...8년 275억(2026.09.30)	12
--	----

- 화웨이-퀄컴, 5G·AI 특허 상호사용 계약(2026.10.06)	13
--	----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계획 첫해 목표 미달(2026.10.01) - 기후정책을 연구하는 녹색전환연구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 종합보고'를 30일 공개한 결과,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지난해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이 2093만6900톤으로 목표치 2401만9300톤의 87.2%에 그친 것으로 확인 - 광역 단위로는 전북(135.6%)·충남(132.9%)·경남(112.2%) 소속 기초정부만 목표를 웃돌고 대전은 40.7%로 가장 낮았으며 충북(60.5%)·강원(69.1%)·대구(75.3%)·서울(78.1%) 등도 저조한 가운데, 전체 목표의 약 45%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이 목표 1073만3900톤 대비 713만6600톤(66.5%)에 머물러 주요 부문 중 최저 수준으로 집계 - 전국 기초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제 1만1579개 가운데 미달성·지연 과제 2031건의 34.8%인 706건이 건물 부문으로 서울 구로구 신축 공공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사업의 인증 절차 지연 등이 사례로 제시됐고, 감축 책임에 건뒀 지방정부의 권한·재원이 부족해 정부가 제도와 지원으로 민간 부문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도 대두
지자체	☐ 제주도, G20 유치 TF 확대...탄소중립·AX 연계(2026.10.06)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8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기존 팀 중심의 전담조직(TF)을 15개 관계부서와 4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업체계로 확대하고, 6일 도청 백록홀에서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주재로 '2028 G20 정상회의 제주유치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열어 분야별 여건과 대응 계획을 공유한 뒤 유치 전략과 대내외 홍보 방안을 논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TF는 이창흠 부지사를 단장으로 제주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관계부서가 참여해 총괄·기획, 숙박·회의시설, 관광·문화, 정책·산업, 공항·교통, 항만, 홍보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며, 제주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와 중문관광단지 일대를 중심으로 정상급 숙박시설 20곳과 회의실 132개를 갖춰 약 3만5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 - 특히 정책·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전환(AX)과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 100%(RE100) 등 제주의 선도 정책 성과를 G20 핵심 의제와 연결한다는 구상으로, 개최도시가 확정될 때까지 TF를 운영하며 분야별 실무회의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모 평가항목에 맞춰 참여 부서와 역할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한편 중앙부처·국회·행정시·유관기관 협업체계도 강화할 방침
	□ 충주시, 2030년 온실가스 43.9% 감축 선포(2026.10.01) - 충주시가 호암예술관에서 환경 전문가와 유관 기관, 시민단체,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으뜸도시 충주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모으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향한 정책 로드맵을 공유 - 시는 기준년도인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3.9% 감축하는 중 단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2050년 최종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단계별 구상을 전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전환도시와 생태문화 관광도시, 녹색전환 자원순환도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구축을 설정 - 현장에서는 미래 세대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선언문 공동 낭독과 기후변화·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이 이어져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였고, 시는 관련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세부 이행 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풍부한 수자원과 청정 산림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충남도의회, 탄소제거(CDR) 정책 연구모임(2026.09.30) -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탄소중립 2045 실현 방안 연구모임(대표 김운섭)'이 기존 배출저감 정책을 넘어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격리·저장하는 CDR(Carbon Dioxide Removal·이산화탄소 제거)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중점 연구하기로 하고, 관련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논의에 본격 착수 - 연구모임은 충남의 산업구조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치법규 제·개정과 정책·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김운섭·정병인·김종욱·박유경 의원과 충남도 정현웅 기후환경정책과장, 순천향대 조화성·이태희·이민수 교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유지호 박사 등 전문가가 참여 - 연구모임은 '충청남도 CDR 정책 발굴을 위한 국내외 현황 분석 및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통해 국내외 CDR 정책·기술 사례를 분석하고 충남의 농업·축산·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잔류배출과 탄소중립 이행 여건을 점검할 예정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CDR 촉진·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남 CDR 지원 조례' 제정 등 입법과제 발굴도 추진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동해시, 100MW급 AI데이터센터 건축허가(2026.10.02) - 동해시가 주식회사 동해에이아이 제3캠퍼스가 신청한 100MW급 AI데이터센터에 대한 건축허가를 완료했으며, 해당 데이터센터는 GS그룹이 동해시에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 사업의 1단계 사업에 해당 - 시설은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3만 5천㎡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변전소와 전기실 등 관련 기반 시설도 함께 갖추는 형태로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동해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과 한국전력 전력계통 영향평가 등 주요 절차도 이미 거친 만큼 올해 안에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 경기도, 장애인 AI 자립비서 시범운영(2026.10.01) - 경기도가 이달부터 석 달 동안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AI 자립비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고, 도내 자립지원주택 194호에 거주하는 장애인 252명과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접수 - AI 자립비서는 안부 확인과 복약 관리, 위기 감지 등 입주자 여건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에 사업비 4300만 원을 투입 - 도는 시범운영을 통해 자립지원주택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효과와 함께 지원 인력의 행정업무 부담이 실제로 줄어드는지를 분석할 계획
	□ 구로구, 탄소중립 AI융합 인재양성 추진(2026.10.01) - 서울 구로구가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인공지능(AI) 융합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히며,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지역 학생에게 AI 도구를 활용한 탄소중립 교육 기회를 제공해 기후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 - 구는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보조금 5200만 원을 전액 사업비로 활용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대상은 구내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구일초등학교와 고산초등학교, 고원초등학교, 고척초등학교, 덕의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의 5~6학년 46학급 약 1000명의 학생으로 설정 - 교육은 에너지의 미래와 탄소중립 실천 방법, 온도·조도 감지기를 활용한 '마을을 지키는 AI 환경 순찰차' 코딩, 태양광 전원 원리 이해와 하이브리드 로봇·미래 모빌리티 모형 제작, '탄소중립 골든벨' 등 총 4차시 체험형으로 구성되고, 구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여성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경력보유여성을 강사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도 병행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에너지공단, 기후정책 성과감사 세미나(2026.09.30) - 한국에너지공단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탄소중립 성과관리를 위한 기후정책 성과감사' 세미나를 열고,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예산 집행액이 아니라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검증하는 한편 정책이 목표대로 추진돼 성과로 이어졌는지 독립적으로 점검하는 '기후감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 - 전의찬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성과관리의 핵심이 예산 집행 규모를 넘어 온실가스를 얼마나 추가로 감축했고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지에 있으며 실제 감축분과 산업전환이라는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심홍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SG그룹 이사는 신뢰할 수 있는 기후감사를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 - 해법으로 조정훈 한국녹색기후기술원 원장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국가 차원의 통합 플랫폼을,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정책은 수립 과정을 살피는 감사와 성과는 데이터 정확성을 확인하는 검증으로 나누는 관리체계를 제시했으며, 권오현 에너지공단 상임감사는 혜택은 대기업에 비용은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비대칭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실측 데이터 인프라 지원을 거론
	□ 코레일, 미래철도 자문위 출범...탄소중립 논의(2026.09.30)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0일 서울사옥에서 교통·안전·인공지능(AI)·경영·사업개발 분야 외부 전문가와 경영진이 참여하는 '제1회 미래철도 자문위원회'를 열고, 2032년부터 순차 도입되는 차세대 고속열차(EMU-320) 안전·서비스 사양부터 탄소중립과 지역 활성화까지 철도산업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외부 전문가 자문기구를 출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첫 회의에서는 인구소멸지역 등 지역활성화 모델 개발과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작업자 안전관리 강화, 탄소중립(K-RE100) 이행, 수익증대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이 다뤄졌으며, 차세대 고속열차 사양에 해외철도 사례와 분야별 전문가·현장 직원 의견을 반영하고 단기 현안을 넘어 중장기 과제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 지난 7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사업은 시속 320km급 동력분산식 EMU-320 49편성 총 784칸을 약 5조원 규모로 들여오는 내용으로 내년 1차분 28편성 발주 후 2032년부터 순차 인수가 예정돼 있고, 코레일은 분기마다 정례 회의를 열어 지역균형발전과 모달시프트, 탄소중립 등 주요 경영정책을 논의할 방침
지방기관	□ 부산진해경제자청, 신항 탄소중립 생태계 포럼(2026.10.03)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일 벅스코에서 '신항만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포럼'을 개최하고 부산항신항과 향후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술과 조선·해운·항만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으며,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제12회 부산 R&D주간'과 연계해 진행 - 포럼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R&D 연계·확산 역할과 탄소중립 시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산업 전망, 해운·항만 생태계 구축, 신항만 탄소중립 기술·산업 밸류체인, 글로벌 해운 탈탄소 전환에 따른 국내 조선기자재 산업의 기회 등이 다뤄졌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파나시아·부산항만공사·HMM·유니온 관계자가 참여한 패널토론도 운영 - 경자청은 부산항신항을 중심으로 항만·공항·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 인프라와 동남권의 조선·기계·에너지 제조산업을 탄소중립 기술·산업과 연결해 기업 육성과 글로벌 투자유치로 확대한다는 구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산항만공사·한국선급·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중소조선연구원·한국CCUS추진단·부산테크노파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건설기술연구원, AI로 불법주정차 99% 감축(2026.10.06)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유화 연구위원이 이끄는 도로교통연구본부 연구팀이 엠티지 AI 기반 딥러닝 영상 분석 기술로 불법주정차를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 'MOVI'를 개발해 실증에 성공했다고 6일 밝히며, 불법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도로 구간에 AI 기반 감지 시스템을 설치한 결과 발생 건수가 연간 최대 99% 감소한 성과를 확인 - MOVI는 현장에 설치한 엠티지 AI 카메라가 불법주정차 여부를 확인하면 해당 차량 번호를 근처 도로전광표지판에 공개하고 인근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동시에 안내하며 연석 주변 LED 바닥등으로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 정보는 관제 플랫폼으로 전송돼 구간별·시간대별 불법주정차 특성 분석에도 활용 -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상습 구간에 설치·운영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5분 이상 불법주정차 건수가 전년도 9월 대비 최대 99%, 운영 초기인 지난 1월 대비 약 85% 줄었고 설치 지점당 사회적 비용 절감액은 2026년 기준 약 2000만원으로 추정되며, 연구팀은 경남 김해 등 다른 지자체로 실증을 확대하며 지역 맞춤형 운영 모델 개발을 계획
지방기관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AI 안전관리·저탄소 경영(2026.10.06) - 임병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저탄소 경영과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를 공공서비스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환경과 안전을 별개 과제가 아닌 하나의 경영체계로 연결해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촘촘한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표명 - 공단은 기존 시설관리 중심 경영에서 한 단계 나아가 환경과 안전을 경영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시재생안전협회의 '저탄소 인증'과 'AI 안전관리 인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을 획득했으며, 임 이사장은 AI 안전관리가 사람의 경험과 육안 확인에 의존한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발견·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 - 탄소중립은 공단 ESG 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ESG 경영 선포와 성과관리,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 친환경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며 환경경영을 일상적인 업무로 정착시키고 있고, 중장기 에너지 관리계획 수립과 주차장 조명의 디밍제어시스템 교체, 병뚜껑 업사이클링·이끼불 제작·탄소중립포인트 등 주민 참여 활동도 병행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레미콘연합회, 제주시 경영혁신 포럼 개최(2026.10.06)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5일부터 7일까지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전국 회원조합·조합원사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제주 레미콘 경영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히며,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레미콘업계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모색 - '회복을 넘어 단단한 성장으로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을 내딛다'를 주제로 한 포럼 첫날인 5일에는 공공조달 정책방향과 레미콘 주요 현안, 건설경기 전망과 레미콘업계의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이어졌고 한국콘크리트시험원은 일본·중국과의 산업교류를 통해 조사한 해외 시멘트·레미콘산업 현황과 국내 저탄소 시멘트 동향을 소개 - 둘째 날인 6일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중소레미콘기업의 대응방향 등을 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제로 미래 경영전략을 모색하며, 배조웅 회장은 이번 포럼이 공공시장과 탄소중립, AI 등 업계에 다가오는 변화에 함께 대응해 단단한 성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회원사가 사업을 지속할 정책 기반을 다듬는 것이 연합회의 역할이라고 피력
	□ 공주금학초, 원예활동 탄소중립 교육 운영(2026.10.03) - 공주금학초등학교(교장 김양미)가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의 의미를 배우는 '초록 도시를 가꾸는 원예 교실'을 진행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2026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 모델 조성 시범사업'의 하나로 마련돼 영우네농장 김영태 마을교사의 지도 아래 운영 - 지난 4월 사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초화류 심기와 손잡이 화분 만들기, 테라리움 만들기 등 체험 중심의 원예 활동을 이어가며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 속 탄소순환의 원리를 익히도록 구성했고, 9월 23일 4차시 교육에서는 직접 국화를 심으며 식물의 탄소 흡수와 도시 환경을 가꾸는 역할을, 5차시에서는 말린 국화와 편백 큐브 등을 활용한 친환경 향주머니 만들기를 체험 - 학생들은 '꽃을 심어요, 탄소는 줄여요' 등 탄소중립 실천 메시지를 공유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함께 모색했고 프로그램을 마친 뒤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와 원예 활동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난 가운데, 학교는 학생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방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LGU+, AI 네이티브 컨택센터 전략 공개(2026.09.30) - LG유플러스가 2030년까지 상담 대기시간 없는 인공지능(AI) 컨택센터(CC)를 구현하기 위한 'AI 네이티브 컨택센터' 전략을 30일 공개하고, 자체 고객센터에서 축적한 운영 경험과 AI 기술을 결합한 '인소싱 AICC'를 앞세워 운영 전반의 AI 전환(AX)을 이끌며 2030년까지 AICC 사업 매출을 연평균 50%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 - 이날 공개된 핵심 솔루션은 AI 콜봇·챗봇과 AI 상담어드바이저, 상담 품질평가 자동화 기술(AI Auto QA) 등으로 기술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 고객센터 운영 현장도 함께 공개됐으며, 요금 조회나 서비스 가입처럼 상담사 연결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해 고객 상담의 모든 과정에 AI를 적용해 상담 품질을 높이는 구조 - LG유플러스는 연간 수천만 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전국 17개 고객센터를 AI 기술 검증·고도화의 실증 플랫폼으로 활용해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기능만 B2B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고객센터 운영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고객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시장의 투자 효용 우려에 대응
	☐ 우리은행, AI 채무진단으로 포용금융 확대(2026.10.06) - 우리은행이 중·저신용자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서며 이자 부담 완화와 연체채권 소각,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무 진단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내놓고, 지난 6월 신용대출 금리와 신용점수,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AI가 종합 분석하는 'AI포용채무진단' 서비스를 출시 - 우리은행은 지난 1월부터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개인 신용대출 금리 상한을 연 7%로 제한하고 3월에는 예·적금과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 거래실적이 있는 개인고객까지 대상을 넓혀 우리금융그룹 고객 약 7만5000명이 8월 말까지 이자비용 30억원가량을 줄였으며, 'AI포용채무진단'은 연령과 채무 상황을 반영한 진단 리포트를 제공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3월 출시한 '우리WON 드림 생활비대출'은 대안신용평가 모델로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주부·프리랜서를 지원해 8월 말까지 약 7000명에게 총 555억원을 공급하며 전체 공급액 1000억원의 절반을 넘겼고, 은행은 올해 1600억원 규모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연체 6년 초과 소액 차주 추심 중단, 신용보증기금 60억원 출연 등도 병행
	□ 두산에너지빌리티, 스페이스X AI에 가스터빈(2026.10.06) -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스페이스XAI에 수출하는 S2 380메가와트(MW)급 가스터빈(DGT6-300H) 제작을 완료하고 6일 창원 본사 가스터빈 조립공장에서 출하식을 개최했다고 밝히며, 출하식에는 발주처인 스페이스XAI 주요 관계자와 손승우 두산에너지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 등 임직원 70여명이 참석 - 참석자들은 가스터빈 출하 현장을 참관하고 창원 본사의 생산시설을 둘러본 뒤 두산에너지빌리티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가스터빈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에 출하하는 가스터빈은 스페이스XAI가 미국 내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 -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기술 규격 요구를 충족한 이번 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빅테크와의 사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세계적인 AI 기업 공급망 진입으로 대한민국 가스터빈의 기술력과 품질을 입증했고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대형 가스터빈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표명
	□ 코스맥스, AI 원형탈모 예측 모델 특허 출원(2026.09.30) -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 코스맥스가 별도의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고도 인공지능(AI)이 건강 데이터만으로 원형탈모 발생 위험을 미리 짚어내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고 30일 밝히며, 유전자 검사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처럼 생체 샘플을 직접 채취해야 해 소비자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 탈모 예측 방식을 보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코스맥스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건강검진 빅데이터 약 2200만건을 AI에 학습시켜 혈압과 간 수치 등 건강 관련 정보뿐 아니라 인구통계와 사회경제적 정보를 포함한 총 33개 변수를 종합해 원형탈모 위험도를 분석하도록 했으며, 탈모에 신체적 요인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반영 - 해당 알고리즘은 맞춤형 뷰티 플랫폼 '바이닉(BYNIQ)'에 시험 적용돼 문진 결과 위험도가 낮으면 탈모 완화 비고시 기능성 소재 '소이액트(SOYACT)' 제품을, 높으면 프리미엄 성분 '가녹실(GANOXYL)' 함유 제품을 추천하며, 회사는 동아시아계·유럽계·아프리카계 387명의 두피 표적 지질체를 분석해 두피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한 연구도 확대
대학교	□ 국립순천대, AI중심대학 선정...8년 275억(2026.09.30) - 국립순천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AI중심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히며,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정부지원금 212억 원을 포함해 총 27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교육혁신 사업으로 'AX 혁신을 위한 AI 생태계 대전환 선도대학'을 비전으로 제시 - 국립순천대는 기존 SW중심대학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구조(A)·교육체계(B)·취창업(L)·성과확산(E) 네 축을 동시에 바꾸는 'ABLE 4대 대전환' 전략을 통해 'NOVABLE AX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으로, 인공지능공학·전기공학·전자공학·기계우주항공공학전공과 컴퓨터교육과 등 AI학과 5개 주관학과와 AX학과 33개 전공을 합쳐 38개 학과·전공이 참여 - 교육과정은 전교생이 AI 교양 5학점 이상을 필수 이수하고 비전공자는 'AX 브릿지' 8학점을 거쳐 융합·연계전공에 진입하는 '연결형 AI NOVA 교육체계'로 재편되며, 순천(문화콘텐츠)·여수(석유화학)·고흥(우주항공·스마트팜)·광양(소재·반도체) 등 거점 도시별 산업 현안에 AI를 적용한 교육 트랙으로 '지역 정주형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구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 화웨이-퀄컴, 5G · AI 특허 상호사용 계약(2026.10.06) -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5일(현지시간) 공동 발표를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과 컴퓨팅 · 인공지능(AI) · 네트워크 등 여러 기술 분야의 특허를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년간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퀄컴이 화웨이의 컴퓨팅 · AI · 네트워크 관련 미국 특허 일부를 매입하는 내용도 포함 - 공동 발표문에는 구체적인 계약 규모와 특허 수량, 대금 지급 구조가 공개되지 않았고 거래는 필요한 규제당국 승인을 받은 뒤 완료될 예정이며, 퀄컴이 화웨이에 지급하는 금액이 받는 사용료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닛케이아시아 보도에 대해 퀄컴은 6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부정확하다고 반박하면서도 미국 특허 일부 매입 사실은 확인 - 회로를 수직으로 접어 쌓아 신호 경로를 줄이는 화웨이의 '로직 폴딩' 특허 포함 여부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화웨이 대변인을 인용해 포함됐다고 보도한 반면 퀄컴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공동 발표문에도 명시되지 않아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양사는 2020년 7월에도 특허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사용 조항을 담은 장기 글로벌 특허 사용계약을 체결한 전례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